



Global Packaging News

Germany

국제 식품전시회 ‘아누가 2023’ 입장권 구매 시작
10월 7일부터 11일, 5일간 독일 쾰른에서 개최

세계 최대 B2B 식품 전시회 아누가(anuga) 2023 입장권 예매가 시작되었다. 아누가 2023은 독일 쾰른에서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개최



▲ 아누가(anuga) 2023 입장권 예매가 시작되었다. 해당 전시회는 독일 쾰른에서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될 예정이다. 국제 식품 전시회 아누가는 전 세계 F&B 관계자가 주목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올해도 전시장의 모든 홀이 글로벌 식품 업체로 가득 찰 예정이다. 축구장 44배 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아누가는 식재료와 냉장·냉동식품부터 간편식, 비건식, 기능성 식품까지 식품 산업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이 없다.

아누가 2023은 코로나 이전 2019년의 기록을 능가할 전망이다. 개최 100주년이었던 아누가2019는 107개국 7,972개사가 참가하였으며, 201개국 169,653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21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98개국 4,643 개사 참가, 169개국 70,000명 방문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굳건한 입지를 보여줬다. 올해는 본격적인 엔데믹을 맞이하

여, 전 세계 식품 산업의 대가들이 참가소식을 전하면서 업계 내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편 아누가 2023 입장권은 공식 홈페이지 티켓샵 (tickets.anuga.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시회 입장권 및 참관에 관한 사항은 주최사인 쾰른메쎬 공식 한국 대표부 라인메쎬(주) (02-798-4105, claire@rmesse.co.kr)에 문의할 수 있다.

Germany

금속산업 전시회 'GMTN 2023' 성료

'녹색전환' 주제로 혁신 기술 대거 출품

탈탄소화라는 비가역적 현상을 앞두고 철강 업계는 그 어느 때 보다 분주하다. 탄소중립을 향한 갈증을 증명하듯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지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 금속산업전시회 GMTN 2023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전시회에는 56개국 2,200개 기업이 참가하고 114개국 63,300명이 방문했다. 한국 방문객은 전회차보다 14% 더 증가했다. 참가사 해외비중(독일 외 국가 비율)은 76%에 달했으며 방문객의 경우 69%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 글로벌 금속산업의 중심지임을 확실히 보여줬다.

GMTN 2023은 금속 산업의 당면과제를 겨냥한 최신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였다. 획기적 탄소 발자국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린스틸 가치사슬 구축, 산업 4.0 연계 스마트 금속 제조 기술 등에서 빛나는 솔루션과 로드맵이 제시됐다.

금속산업의 '녹색심장' 에코메탈 캠페인

2011년부터 GMTN 전시회가 기획하고 있는 '에코메탈 캠페인'은 전시회의 '녹색심장'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는 행사다. 올해 역시 친환경 혁신

기업 투어 프로그램인 '에코메탈 트레일스'를 운영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하고, 혁신 기술의 전파를 도왔다.

'에코메탈스 포럼'에서 탈탄소 운영 노하우, 친환경 열처리 기술을 주제로 한 열띤 강연이 펼쳐졌다. VDMA(독일기계공업협회), 프라운호퍼 시스템 혁신 연구소, 아헨대학교, 하노버 라이프니츠대학교, 프라이베르크대학교 등 글로벌 전문가가 대거 연사로 나서 강의를 진행했다.

올해 신설된 에코메탈 어워드는 에코프로세스, 에코에너지, 에코테크놀로지의 3가지 부문에서 뛰어난 기업을 선정해 상을 부여했다. 500개 기업 중 에코프로세스 부문은 수성코팅 제품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기술을 개발한 Foseco Foundry Division – Vesuvius사가 수상했다. 에코에너지 분야는 저탄소재활용 알루미늄 제품으로 탄소배출량을 크게 절감하는 기술을 가진 Hydro Aluminum Metal사, 에코테크놀로지 상은 오류 최소화, 에너지 절감 주요 공정 시뮬레이션으로 Magma Gießereitechnologie사가 각기 수상했다.

특별행사 '캐스테인러빌리티' 및 NEW CAST 어워드

국제 캐스팅 업계 미팅포인트인 NEW CAST 전시회는 '캐스테인러빌리티(Castainability)' 포럼과 NEW CAST 어워드를 진행했다. 캐스테인러빌리티는 캐스팅 분야 탄소중립 이행 능력이란 뜻의 신조어로 금속업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로 급부상했다. 독일 파운드리협회(BDG)가 진행한 캐스테인러빌리티 포럼은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e-모빌리티로의 전환, 기후 중립 유도 기술을 주제로 밀도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방문객들이 계단을 타고 풍력 터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체험형 행사를 기획해 화제를 모았다.



NEW CAST 어워드는 베스트 통합 부문, 베스트 제조공정 대안 분야, 베스트 경량 건축 솔루션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선정해 시상했다.

ESTAD 및 EMC 컨퍼런스

함께 열린 국제 행사 역시 GMTN 2023 방문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ESTAD는 유럽 최대 철강 컨퍼런스로 수소기반 탄소중립 철강생산에 집중한 다양한 포럼을 진행했다. 본 행사는 포스코의 기조연설을 필두로, 포항공대, 현대제철 등 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EMC(유럽야금학회)는 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등 비철금속 분야를 선도하는 행사로 전 세계 4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인더스트리 4.0, 순환경제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캐스팅, 열처리 포럼, 플랜트 엔지니어링, 로보틱스 포럼, 금속계 여성 전문가조명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금속산업의 로드맵 제시



▲ 지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금속산업전시회 GMTN 2023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전시회에 글로벌 금속 유도산업 리딩기업인 닥타섬 그룹, 산업용 유도 가열 솔루션 기업 GH Induction, 세계적 파운드리 공급업체 철강제조설비 전문 SMS Group, 주물산업용 화학소재 전문 ASK Chemicals GmbH, 캐스팅 소프트웨어 전문 MAGMA, 티센크루프머티리얼, 세플러를 비롯한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주관한 한국공동관의 8개사를 비롯해 GIFA에 이엠엘, 영신타우강 등 5개사, METEC에 원진월드와이드, MJE, 삼우에코 등 5개사, THERMPROCESS에 컴버스텍이 개별 참가했다.

글로벌 금속산업의 트렌드와 혁신을 찾아 포스코, 세아그룹, 동국제강, 현대자동차그룹, KISCO 홀딩스, 한화를 비롯해 국내 철강금속 및 관련 산업 리딩 기업이 대거 GMTN 2023 전시장을 방문했다. 또한 포항공대, 한국자동차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도 전시장을 찾았다.

세계 철강 1위 기업인 포스코는 올해 전시회를 방문한 소감으로 “당사는 유럽 현지 업체 발굴에 중점을 뒀다. 다행히 GMTN 사이트에서 분야별(철강·제선/선강/압연) 업체들이 리스트업 되어있어 효율적으로 사전 조사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유럽 선진 엔지니어링 기업이 어떤 로드맵으로 향후 미래 시장을 대응할지 구체적인 시장조사를 진행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또 세계적 종합 철도 전문 기업 현대로템 측 역시 “GMTN 2023 전시회

를 통해 철강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철강 산업의 미래 방향을 이해할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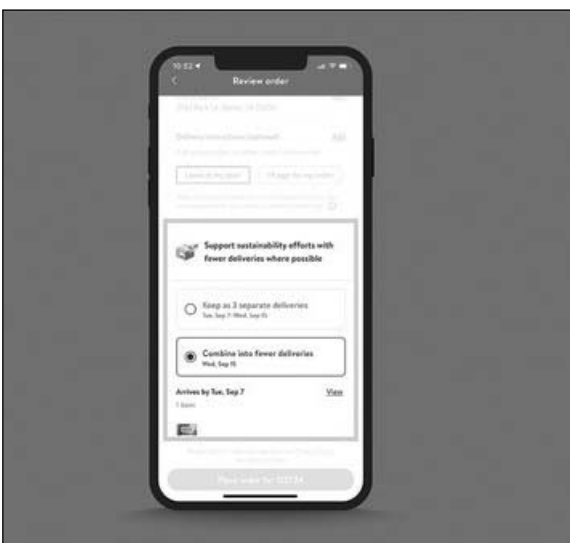
한편 GMTN은 GIFA, METEC, THERMPROCESS, NEW CAST 전시회를 함께 일컫는 말로, 4년 주기로 동시 개최되고 있다. 주조, 야금, 열처리, 캐스팅을 비롯해 금속산업을 총망라한다. 차기 전시회는 2027년에 개최되며, 문의사항은 www.tbwom.com 또는 공식 한국대표부 라인메쎈(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인메쎈: info@rmesse.co.kr, 02-798-4343)

USA

온라인 주문 시 플라스틱 포장을 ‘종이로 전환’ “올 연말까지 美 2000톤 플라스틱 쓰레기 사라져”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Walmart)가 플라스틱 포장을 종이로 바꿀 것이라고 선언했다.

월마트(Walmart)는 지난 6월 1일(현지시간) 온라인 주문과 관련한 포장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 월마트는 지난 6월 1일 온라인 주문과 관련한 포장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포장의 대부분을 종이로 바꿀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해 포장의 대부분을 종이로 바꿀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플라스틱 비닐 팩으로 배송되는 대부분의 주문은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팩으로 포장된다.

미국 월마트의 연간 총매출 중 온라인 판매가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 미국에서 발생할 2000톤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마트는 또한 ‘적절한 크기의 포장 기술’로 전환해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데 사용되는 판지의 양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기술은 고객의 주문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박스 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제거함으로써 필러의 사용을 60% 줄이는 동시에 대형 박스로 인한 낭비를 최대 26%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을 하는 모든 월마트 고객은 이제 여러 품목을 더 적은 수의 박스로 통합해 배송 횟수뿐만 아니라 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월마트 풀필먼트 네트워크운영 수석 부사장인 카리사 스프래그는 “이번 변화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월마트를 어떻게 혁신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객은 지구와 다음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지속 가능한 선택을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월마트는 앞서 4700개 매장을 주문 처리 센터로 활용해 204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월마트는 AI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구매한 품목을 물류 센터가 아닌 매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식별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하면 주행 거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송에 사용되는 박스 수를 줄일 수 있다.